

# John Calvin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새로운 접근

- 「기독교강요」 제4권의 “어머니” 명칭을 중심으로 -

指導 최 태 영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년 11월 29일

영 남 신 학 대 학 교 신 학 대 학 원

신 학 과 조 직 신 학 전 공

김 종 순

# 김종순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主審 \_\_\_\_\_

副審 \_\_\_\_\_

副審 \_\_\_\_\_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년 11월

## 感謝의 契

먼저 저를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인도하시고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연단 받아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感謝합니다.

부끄러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따뜻한 눈길과 손길로 다듬어 주신 지도 교수이신 최태영 교수님께 감사를 포함합니다. 感謝합니다.

동고동락한 운명공동체인 가정과 고향과 교회에 기쁨을 傳합니다. 感謝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자식걱정에 애태우시는 어머니, 도개에서 영적으로 권면해 주신 장인, 장모님에게 평안의 선물로 드립니다. 미래식구들에게도.... 感謝합니다.

14평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아내와 이래(怡來), 주성(主性)이에게 이것을 통해 함께 위로함을 누리며 感謝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야고보서1장4절◀

2002년 11월 일

김 종 순

## 목 차

I. 서론 .....	1
A. 문제제기 .....	1
B. 연구범위와 방법 .....	2
II. 칼빈의 생애와 신학 .....	4
A. 칼빈의 생애 .....	5
B. 칼빈의 신학 .....	8
III. 통시적으로 본 교회론 .....	10
A.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교회론 이해 .....	10
1. 개혁주의 신학의 역사 .....	11
2. 개혁신학의 교회관(칼빈을 중심으로) .....	12
B. 교회론 이해 .....	14
1. 교회란 무엇인가? .....	15
2.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	17
3. 교회의 목적 .....	19
4. 교회의 문제점 .....	20
C. 성령님과 교회론의 유기적 관계 .....	21
1. 성령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의 연관성 .....	22
2. 성령과 교회의 상관성 .....	27
3. 성령님의 교회에 대한 행동 .....	28
D. 학자들의 교회론 이해 .....	30
1. 어거스틴의 교회론 .....	30
2. 칼 바르트의 교회론 .....	35

IV. 칼빈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토대인 「기독교강요」 .....	39
A. 「기독교강요」 이해 .....	39
1. 「기독교강요」의 역사 .....	40
2. 집필동기와 목적 .....	41
B. 「기독교강요」 출판과 원천 .....	44
1. 「기독교강요」 출판 .....	44
2. 「기독교강요」의 원천 .....	46
V. 망원경적으로 본 “어머니로서의 교회” .....	47
A. “어머니로서의 교회” 어원론적 이해 .....	47
1. “어머니”의 용어에 대하여 .....	47
2. “어머니”와 “교회”의 연관성 .....	49
B.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을 통한 “어머니로서의 교회” .....	50
1. 어머니로서의 교회 배경 .....	51
2. 제4권에 나타난 “어머니로서의 교회” .....	52
VII. 칼빈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와 교회의 주소인 하나님의 나라 .....	55
A.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	55
1. 교회의 시대적 정황 .....	56
2. 칼빈의 하나님 나라 개념 .....	57
B. 이 시대 칼빈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	58
1. 세상 안에서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위치 .....	58
2. 이 시대와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관계 .....	59
VIII. 결론 .....	61
참고문헌 .....	65

# I. 서론

## A. 문제제기

영화 “집으로”<sup>1)</sup>가 왜 그렇게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먼지 폴폴 날리는 시골길을 한참 걸어, 엄마와 7살 상우가 할머니의 집으로 가고 있다. 형편이 어려워진 상우 엄마는 잠시 상우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기로 한다.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외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 시골 외딴집에 상우를 남겨둔다. 전자오락기와 롤러 블레이드의 세상에서 살아온 아이답게 밧데리도 팔지 않는 시골가게와 사방이 돌 투성이인 시골집 마당과 캄캄한 뒷간은 생애 최초의 시련이다. 하지만, 영악한 도시 아이답게 상우는 자신의 욕구불만을 외할머니에게 드러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외할머니가 그렇듯 짓궂은 상우를 외할머니는 단 한번도 나무라지 않는다. 7살 소년과 77세 외할머니의 귀(?)막힌 동거생활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영화 “집으로”의 할머니와 외손자가 뒤틀리는 답답함과 기막힘이 연출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외형적인 양식은 도시생활로 길들여진 소년 상우와 같다. 전자 오락기를 가지고 기뻐 뛰놀며 즐기다 밧데리가

---

1) 이정향 감독의 작품이다. 영화 집으로는 39회 대중상 영화제에서 3개 부문을 석권했다. 최우수 작품상, 기획상, 각본상을 받았다.

떨어진 상태다. 교회의 존재양식을 잃었다. 교회의 생명을 잃었다. 배터리를 충전하여야 한다. 그 배터리는 성경에서 얻어지고 공급된다. 배터리없이 오락기를 가지고 뛰노는 어리석은 현대교회다. 무너진 교회의 증군은 손자가 구박하여도 참고 받아들이는 외할머니의 가슴이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칼빈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교회다운 교회의 주소가 어디 있으며, 교회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가에 답을 못하는 시대이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론을 통하여 배터리가 없는 교회에 충전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회는 엄한 아버지가 되어 가부장적으로 지내왔다.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엄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치듯이 교회는 성장병에 빠져 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격이다. 성도가 교회에 모여야 한다. 모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한다. 이런 인간 끌어모으기 게임에 교회는 몰입중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떠나 미친 춤을 추는 교회는 이성없는 짐승이 되어 가고 있다. 시대적 정황은 이러한 교회에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이러한 암담한 시대적 정황에 교회가 치유할 방안은 칼빈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식을 구별없이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상납한다. 바로 교회가 세상과 시대를 어머니의 심정으로 다가갈 때 세상과 시대를 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교회의 처방과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B. 연구범위와 방법

칼빈의 교회론은 1559년의 기독교강요 최종판(전 4권)을 관통한다. 그는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 비유하였다. 어머니의 양육 없이 그리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 양육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는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인 교회’는 칼빈의 교회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복음과 진리 안에서의 칼빈의 관용과 일치 정신은 희석되고 교리와 형식만이 강조될 때 그것은 칼빈이 그토록 개혁하려 했던 중세 카톨릭교회의 형식주의와 경직성을 답습하는 퇴행이 되고 말 것이다.

칼빈의 저술을 위주로 그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독교강요’ 제4권에 나오는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위치와 임무를 살펴본다.

I 장은 문제의 제기와 연구방법을 밝힘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 II 장은 칼빈의 생애와 신학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서 그의 신학적 배경과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교회론을 통시적으로 살펴 본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교회론에 대한 기초적 사항을 살피고, 교회론과 합일되는 성령론을 유기적관계로 이해하였으며 그리고 관련된 학자들의 교회론을 소개하였다. IV 장에는 어머니로서 교회 토대인 『기독교강요』를 이해하는데 힘썼다. V 장에는 망원경적으로 본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VI 장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을 통한 어머니로서의 교회, VII 장에는 이 시대 칼빈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살



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VIII장에서 결론을 내리며 본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칼빈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교회의 현실에 비추어 봄으로써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고자 한다.

## II. 칼빈의 생애와 신학

칼빈에 대해 이해하기란 어렵다. 루터나 그 밖의 인물들보다 그는 더 복잡하고 난해해 보인다. 칼빈의 생애와 신학 사상의 영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교권자들의 전유물에서 평신도들의 손에 돌리려고 노력하였다. 지금도 우리는 같은 운동이 필요하다. 성서학자들, 또는 신학자들의 손에서 평신도들의 손에 돌려주어야 한다. 주님은 성경이 읽기 까다로운 책으로 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되기를 원하실 것이다. 신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는 데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책이 되기를 원하실 것이다.<sup>2)</sup>

칼빈의 생애도 신학자만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신학교 안에서 신학하는 자의 전유물로 칼빈이 기억된다면 불행이다. 칼빈의 생애가 널리 알려져 교회다운 교회를 발견하여야 함이다.

---

2) 최태영, 『버리면 얻는다』 (대구:보문출판사,1997), p.4.

존 칼빈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현대 역사의 현장을 우아하게 만들었던 인물에 대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재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비록 칼빈의 저서를 읽는 사람의 수가 비교적 적기는 하지만 그의 사상이 교묘하게 얽혀서 현대의 서방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현대의 시장 경제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의 복음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민간 종교와 프랑스에는 모두 '종교개혁의 신학자'라고 표현되어 마땅한 이 프랑스인의 생애와 사상에 의해서 결정적인 모양을 형성하게 되었다.<sup>3)</sup>

## A. 칼빈의 생애

존 칼빈(John Calvin)은 1509년 6월 10일에 파리시에서 58리 동북쪽에 있는 피카디市에서 출생했다. 칼빈의 아버지는 그 지방에서 이름난 변호사였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와 교회 지위로 인하여 상류계급 사회에 접촉했고 귀족적 분위기에서 자라났다. 칼빈은 1523년 8월에 파리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 후 5년간 철학과 어학공부에 열중했고 지성인들 중에서 환영을 받고 있던 휴머니즘에 동정하였다. 칼빈은 秀才였다. 그는 라틴어 학자로 명망이 높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법학공부를 시켰다. 칼빈은 당시 유명한 법학자 피어텔-에텔 교수가 있었던 오린대학교에 입학했고 그 후에 벨지대학교로 옮겨 법학 학위를 획득했다. 이 때

---

3) 데오도르 베자, 『존 칼빈의 생애와 신앙』 (서울: 목회자료사, 1999), p. 7.

칼빈의 아버지가 별세하였으므로 그 후로는 독립적 행동을 할 수 있었다. 그의 법학 연구는 그 후 칼빈으로 하여금 신학과 사회문제를 다루는데 개인의 감정을 떠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한 관찰을 할 수 있게 했다.<sup>4)</sup>

칼빈은 인간의 약점에 동정하지 않았고 훈련 없는 대중을 두려워했다. 그는 지성적 귀족이었고 보수적이었고 어떤 면으로는 교만한 청년이었다. 그러던 중 칼빈이 희랍어와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한 후부터 그의 마음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처녀출판물이 발행된 1532년부터 1534년 동안 칼빈은 ‘돌연히 회심’하는 경험을 하였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성경귀절을 통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겠다는 경험을 얻게 되었다. 이 때부터 칼빈의 생활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생활의 중심점이었다. 이 때 칼빈이 로마교와 사상적으로 충돌이 있었는지, 또 있었으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계속해서 프랑크 대학 휴머니스트 친구들과 가까운 교제를 하였다.<sup>5)</sup>

1533년 11월 1일에 휴머니스트 친구들 중 한 사람인 콥이 파리대학교 총장으로 피선되어 취임식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 연설에서 새 총장은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사상을 소개하면서 개혁의 필요를 주장했다. 칼빈은 콥 총장의 이념에 동정했다. 프란시스 1세는 루터 개혁파인 콥 총장의 체포를 명령했다. 칼빈은 콥과 같이 몸을 피하여 친구집에 숨어 있었다.

---

4) 선우학원, “칼빈의 生涯와 政治思想”, 『기독교사상』 제111권(1967. 7), pp. 95-96.

5) Ibid., p. 96.

구교와 분리해야겠다는 생각은 젊은 칼빈의 가슴을 격동시켰다. 칼빈은 고향에 돌아가서 로마 카톨릭에서 받고 있었던 재정 후원을 끊어 버렸다. 이 때 얼마 동안 칼빈은 감옥생활을 체험하였다. 칼빈의 생활에는 위협이 당면했다. 프랑스의 프란시스 1세는 신교개혁운동의 무법 행위를 말하면서 탄압정책을 시작했다. 칼빈은 바슬市에 가서 조용히 자기의 사상과 동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sup>6)</sup>

칼빈이 프란시스 1세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여행하던 중 제네바에 도착했다. 이 때 맘침 화렐은 칼빈을 설복시켜 제네바에 머물면서 신교개혁사업을 지도해주도록 했던 것이다. 칼빈은 처음에는 성서 교사로 시작했고 1년 후 비로소 교역자의 한 사람으로 임명을 받았다. 칼빈은 3년간 제네바에 있으면서 자기의 교리를 고집하여 제네바시가 크리스천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구상하였다. 그리하여 제네바 시민들은 엄격한 크리스천 생활을 하도록 했다. 3년간의 칼빈의 노력은 위협에 당면하게 되었다. 칼빈의 과도한 엄격성은 많은 시민에게 불만을 일으키게 했다. 결국 시민의 불만은 칼빈의 지도적 지위를 파괴했고 칼빈은 자기 형제들이 거주하는 스트라스버어그로 가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제네바에서의 3년은 칼빈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행복스러웠던 때였다.<sup>7)</sup>

칼빈은 55세가 되기 한달 반전에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그가 그 사역에 부름을 받은 바로 그 첫 날 선포했던 원칙을 바꾸거나 더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덜함이 없이 말과 글을 통한 기독교 사역에

---

6) Ibid., p. 96.

6) Ibid., p. 97.

그의 생애의 모든 것을 바쳤다.

## B. 칼빈의 신학

칼빈은 한 교파의 신학자가 아니라 에큐메니칼한 신학자다. 그가 간지 450년이 이미 넘었지만 하나님, 인간, 은총, 교회, 실천 생활, 나아가서 세상의 정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도 다시 들어 읽고 참고하고 길 안내를 삼아야 할 글을 남겼다.<sup>8)</sup>

사람들은 칼빈 신학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다. 가장 편협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칼빈의 신학사상하면 곧 예정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그 가지는 보나 뿌리를 보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물론 칼빈의 신학사상 중 예정교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은 그것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신학사상에서 뻗어나온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섭리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범한 것으로, “비논리적 대담성”이 칼빈의 중심 사상이라고 비꼬는 사람도 있다. 사실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다.<sup>9)</sup>

칼빈은 오히려 “우리가 이 목사직에 있는한, 만일 우리가 전염될 것

---

8) 전경연, “칼빈의 신학”, 『기독교사상』 제185권(1973. 10), p. 134.

9) Ibid., p. 32.

이 무서워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등한히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하였다.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 이것을 실천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칼빈을 위대한 개혁자, 위대한 신학자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선한 목자의 심정인 뜨거운 사랑과 정열이었던 것이다.<sup>10)</sup> 그는 실로 사변적 신학자이기에 앞서서 정열적인 목회자였던 것이다. 바로 이 정열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개혁자로 만들었던 것이다.<sup>11)</sup> 칼빈신학의 요점은 그의 성서 이해, 성령, 그리스도론적 사고 등에 나타나 있다고 보며, 어느 한 원리로써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sup>12)</sup> 칼빈은 ‘창조와 섭리’ ‘죄론’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현대적 문제인 자연이나 인간의 집단적 유죄성에 관해서도 가르쳐 주는 바가 많다.<sup>13)</sup> 칼빈의 표현은 어거스틴의 것과 비슷하며 그림자와 밝은 상의 대조로 하고 양자 모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본다. 아직 역사비평이 대두하기 전의 것이지만 그리스도교의 경전은 구약과 신약 둘의 통일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유명한 ‘그리스도의 생활’의 향은 훌륭히 서술되었다. 자기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생, 그것은 낙관적도 비관적도 아닌 희망으로 사는 생임을 밝혀준다. 그리고 예정론, 교회론 등의 매우 그리스도론적 색채가 짙은 모습을 밝혀준다.<sup>14)</sup> 칼빈의 신학은 저자가 마음대로 선택한 선형적 원칙들에 근거하여 형성된 철

---

10) Ibid., p. 38.

11) Ibid.

12) 전경연, op.cit., p. 134.

13) Ibid., p. 135.

14) Ibid.

학적 구조물의 엄격한 틀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만일 우리가 칼빈의 ‘체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저자의 사고에 동시에 나타나는 주제의 복수성 때문에 상당한 조심성을 가지고 해야만 한다.

칼빈의 신학은 상당히 실용적이며 시대적인 신학이었다. 현실에 충실한 신학이 영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항상 개혁하는 교회’ (ecclesia semper reformanda)’ 를 주장한 칼빈은 오늘에도 우리의 교회와 신학이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계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 Ⅲ. 통시적으로 본 교회론

#### A.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교회론 이해

구약은 교회를 표현하기 위하여 “부르다”를 의미하는 어근에서 비롯된 과 “시정하다”,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다, 만나다”를 의미하는 에서 비롯된 를 사용한다.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용된 칭호가 그대로 교회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택함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 거룩한 국민”, “하나님아들 소유가 된 백성” 들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를 몸과 머리의 관계로 비유한다.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교회는 성도의 교

체이다. 결국 교회는 증인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교회의 맥락에서 통시적으로 교회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개혁주의 신학의 역사

개혁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전통을 이어온 가장 근간을 이루는 신학의 주류요 대종이다. 참된 기독교는 칼빈주의적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적 정통 신학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학은 여러 신학 중의 한 지류 혹은 한 갈래의 신학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자체의 참된 기독교 신학임이 명백하다.

개혁주의는 성경주의이고 그것은 특별히 성경적 성경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교회들보다 하박국적인 믿음과 성경에서 요구하는 원색적인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 하). 역사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은 그 기원을 쾰빙글리의 개혁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근본원리들은 이미 쾰빙글리 사상 속에 표현되어 있었으나 칼빈의 심오하고 예리한 해석을 통해 비로소 최종적인 형식을 갖추게 되었고 또한 조직적인 형식을 보게 되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을 통해서 이해된 성경 교리 사상 체계가 개혁파 교회들에 의해서 채택된 공적 신앙고백들과 칼빈을 따르는 대표적 신학자들의 고전적 저서들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은 발달하였다.<sup>15)</sup>



## 2. 개혁신학의 교회관 ( 칼빈을 중심으로 )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 4권에서 " 참 교회에 관하여 그것은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와 일치되어야 한다."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mater fidelium)라는 사상은 루터와 멜랑히톤에게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개념을 크게 발전시킨 것은 칼빈이었다. " 교회가 어머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복음의 보고를, 선교해야 하는 것으로 의탁했다는 한도 안에서 그렇다."

교회는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딱딱한 어떤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요, 상호봉사의 '교체'이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가 각기 받은 은사에 따라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서로 협조하고 결합하여, 하나의 움직이는 유기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그 형성과 존재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도 견고한 보호자 안에서 안주하고 있으므로, 가령 세계의 전 기구가 무너져도 그것이 넘어지거나 붕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그 기초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성서가 요구하는 대로 되어 있을 때 참 교회가 된다.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개혁을 하기 위하여 세워졌고 개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부단한 자

---

15) "이준원 박사의 개혁주의 신학" <<http://chongsin.org/build/board.php3?table=reformed>>

체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 개혁을 계속하는 교회가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 예수의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10:25)고 한 말씀이 교회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그 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기를 원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sup>16)</sup>

그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제 4권은 교회론 보다는 교회 조직적 면을 주로 다룬다. “교회의 참된 위엄은 내적이다.”<sup>17)</sup>

교회란 기존의 카톨릭 교회가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교회들이 바로 하나의 보편적 교회라는 시각이다.<sup>18)</sup>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만 형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분리주의적 모형을 암시한 것이다. 칼빈에게는 그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재세례파에 가까운 면도 있었다. 그는 성찰이 공동체의 의식인 동시에 그것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미리 알려 주어야 했기 때문에 성찬을 높이 평가했다. 또 그는 교회를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 그가 생각해 낸 최종적인 방안은 과문이었으며, 과문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성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목사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인정하나 목사의 성도들에게의 권위와 위엄을 인정하나 칼빈이 세속정치 형

---

16) “개혁주의 신학” <<http://kcm.co.kr/ency/evol/#3>>

17) W.J. 부스마, 『칼빈』 이양호·박종숙역, (서울:도서출판 나단,1991), p.504.

18) 이오갑, 「목회와 신학」, 1994.9. p.286.

태를 논할 때 그의 권위주의가 그의 종화 주의에 의해 수정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평신도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그의 성직자 주의와 긴장 관계에 있었다. 이것이 목사들은 적어도 원리상 교회의 전체 교인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이유였다.<sup>19)</sup>

칼빈에게 있어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로서 신학교보다는 인문주의적 학원에 더 가까웠으며,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그의 학생들의 어깨위에 살펴보고 “그들의 제스처와 걸음걸이 말, 그리고 그의 ”모든것“을 지켜보는 분으로 생각했다.<sup>20)</sup>

그는 또 때때로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런 생각들이 그의 정신을 지배했을 때 교회에 대한 그의 이해는 더 이상 배타적이 아니라 포괄적이 되었다.<sup>21)</sup>

## B. 교회론 이해

קָהָל은 부르다는 קָהַל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로서 예배하러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리켰다. 즉 부름받은 여호와와의 총회, 회중, 집회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창, 출, 레, 민에서는 ‘수나고게’로 전환을 하였으며, 신에서는 ‘에클레시아’로 변환이 되었다. 교회는 주님께 속한 것이다.

---

19) W.J.부스마, op.cit., pp.520-526.

20) Ibid., pp.526-527.

21) Ibid., p. 530.

그리고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예배의 모임을 뜻한다.

## 1. 교회란 무엇인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교회가 시대와 지역과 종족과 인간의 계급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다. 그리스도인들은 한곳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세우심을 받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에 접붙임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주님의 구속적 사역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그 사건에 동참하기 위하여 성만찬에 참여한다.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교제를 증진한다.<sup>22)</sup>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구성되었든지 간에 하나인 동시에 거룩하며,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하나이어야 하므로 교파 간에 연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거룩한 모임이므로 교회를 모든 세상적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사도적 믿음과 가르침과 증언 위에 세워진 것이므로 사도성을 고수해야 하며, 개별성을 가지는 동시에 보

---

22) 『헌법』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p.159.

편성을 견지해야 한다.<sup>23)</sup>

지상에서의 교회는 성장과 갱신과 악에 대한 투쟁을 계속한다. 현역사 안에서 교회가 완성되어 휴식의 단계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하여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sup>24)</sup>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회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곧 성도들의 모임으로 정의했다. 이 루터의 정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신교 교회론의 기둥을 형성하고 있다. 오늘의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를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하는 것은 우선 일차적으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제도 혹은 조직체와 직접적으로 일치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을 위한 장소 또는 예배당의 의미를 지닐 뿐이다.<sup>25)</sup>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제도 혹은 조직체와 직접적으로 일치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을 위한 장소 또는 예배당을 의미할 뿐이다.<sup>26)</sup>

가톨릭 신학자 쾨은 그의 유명한 《교회론》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했다. 즉 교회가 제도라기 보다는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사

---

23) Ibid.,p.160.

24) Ibid.,p.160.

25)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장신대출판부,1997), p.13.

26) Ibid., pp.109-111.

람이라는 뜻이다.<sup>27)</sup>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카톨릭교회 밖에서의 구원의 가능성을 인정했고 교회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했다. 물론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가톨릭교회의 제도적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이미 개신교의 정의와 많은 점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 곧 성도들의 공동체다.<sup>28)</sup>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밖에 존재하는 많은 선한 모임에 대해 귀하게 생각하고 신학적인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그 모임들이 하나님이 나라 건설에 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임들이 귀하다고 해서 그 모임을 교회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신약성서가 교회에 대해 언급할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생각했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란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지 그것이 결코 교회는 아니다. 교회 개념을 무분별하게, 광범위하게 확대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sup>29)</sup>

## 2.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

27) Ibid., p.110.

28) Ibid., p.14.

29) Ibid., p.15.

한국 장로교회가 신조로 사용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25조에는 교회론에 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sup>30)</sup> 그 내용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견적이다. 이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다.

이 고백 속에서 불가견적 교회 즉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언급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 고백에 의하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참 교회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다.<sup>31)</sup>

참 교회는 보이는 기관이나 조직체로서의 현실적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임인데, 지상의 인간으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상과 천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택된 무리라는 것이다.<sup>32)</sup>

보이는 교회는 때로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는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부패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부패한 것은 아니다.<sup>33)</sup>

그러므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별은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모든 그

---

30) Ibid.

31) Ibid., p.16.

32) Ibid., p.17.

33) Ibid.

리스도인의 모임과 활동은 가견적이기 때문이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별은 두 개의 교회라기보다는 동일한 하나의 교회의 두 양태로 이해해야 한다. 즉 보이는 교회는 현존하는 구체적 교회를 의미하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이상적 모습 혹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럴 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개념은 보이는 구체적 교회의 개혁의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개념 속에 투영되어 있는 참 교회라는 개념은 부패한 현실적 교회에 안주할 수 없다는 강한 개혁 의지가 그 핵심이기 때문이다.<sup>34)</sup>

### 3. 교회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봉사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였다.<sup>35)</sup>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한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이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명이다.<sup>36)</sup>

교회가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선 교회가 자체의 존속과 성장을 최종 목표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경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

34) Ibid., pp.19-20.

35) Ibid., p.111.

36) Ibid., p.112.



교회는 자체 기구의 성장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교회 내향성의 병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sup>37)</sup>

교회는 인간의 생명을 교회 제도의 성장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교회는 자체 기구의 존속에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수립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봉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종국적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sup>38)</sup>

#### 4. 교회의 문제점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이 시대의 다급한 질문이다. 필자는 이렇게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진단한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엡5:18)고 하였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멀리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독교 교리의 왜곡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빈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은 사탄의 활동을 매우 개인주의적인 영역에 제한시킨다든지, 매우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탄의 활동을 이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sup>39)</sup>

---

37) Ibid.

38) Ibid.

39) Ibid., p.134.

사탄의 활동은 매우 정치적이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는 정치적 영역에 뛰놀고 있는 사탄의 활동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교회이다.<sup>40)</sup>

사탄의 활동은 매우 이념적이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는 세속적이고 무신적이고, 인간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이념에 대항할 수 있는 성서적이고 복음적이고,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이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sup>41)</sup>

### C. 성령님과 교회론의 유기적 관계

교회 부흥은 성서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성서<sup>42)</sup>는 교회의 부흥 즉 교회의 확장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잘못된 부흥으로 몰입하여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8:26) 그러므로 교회와 성령님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롬8:35)

교회론의 출발은 성령론에 이루어지고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세

---

40) Ibid.

41) Ibid.

42)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후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행9:31)

워졌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회의 함께 신학적 해설은 타당한 것이다.

교회 부흥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시킬 수 없는 것이다. 성령께서 수를 더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수를 더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시킬 수 없는 것이다.<sup>43)</sup> 그러므로 교회를 말할 때 성령님을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와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없이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날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의미와 함께 성령을 의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바로 그 교회안에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신다.<sup>44)</sup>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성령님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만 한다.

## 1. 성령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의 연관성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령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심은 차이가 없으나 활동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현저하게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특정 인물에게만 제한된 역사를 하시다가 떠나가신 사실도 있으나, 신약에서는 한번 내주하시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

43) 이윤근, 『성령론』 (서울:성광문화사,1992), p.113.

44) 광선희, “성령과 선교”, 『기독교사상』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3. 1), p.84.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의 범위가 좁았으나, 신약에서는 그 범위가 넓은 것도 알 수 있다.<sup>45)</sup>

성령의 역사는 먼저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이 없는 성령이 있다면 그것은 귀신이 되어 버리고 만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을 생각해야 한다. 즉,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다. 그리스도를 떠난 성령은 영적 감화에 불과하다.

또한 성령은 말씀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와 함께 성령의 역사는 동시적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신기한 체험을 했다 하여도 곧 그것이 성령은 아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영이다.<sup>46)</sup>

성령은 반드시 교회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의미와 함께 성령을 의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바로 그 교회안에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런데 오늘날 산속 기도원에서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교회안에서는 약하다고들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창고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가장 강하고 바르게 성령이 역사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sup>47)</sup>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교회는 시종 일관 성령님의

---

45) 이윤근, op.cit., p.127.

46) 박선희, op.cit., p.83.

47) Ibid., p.84.

인도를 받아 나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도 없고, 교회도 없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도록 하신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우리는 교회의 존재는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 아니고 성령의 창조며 또 교회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사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었다. 바로 이 교회는 기록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이다.

교회는 계시를 받는 영역, 하나님의 계시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장소, 성령이 사는 곳이며, 여기서 성령은 역사한다.<sup>48)</sup>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역사는 성령의 힘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성령의 임재야말로 교회 활동의 살아있는 중심적인 요건이다. 신약성서의 성령론의 가장 극적인 발전은 성령이 교회에서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기대되었던 보편적 성령의 현존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sup>49)</sup>

성령은 교회안에 거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창조적 사역이 증거되고 확증되도록 한다. 성령은 교회가 그 내적 기능 즉, 설교, 예배, 성찬 등을 행하는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교회의 직능을 대내, 대외적으로 수행케 한다. 또 성령은 예수의 몸인 교회안에 코이노니아를

---

48) 박복량, “성령의 신학적 이해”, 『기독교사상』 제22권(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8. 8), pp.118-119.

49) 김용복, “성령과 역사”, 『기독교사상』 제25권(대한기독교서회, 1981. 4), p.43.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그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 실천케 하고 역사안에 창조적 권능으로서 역사와 인간을 새롭게 한다. 이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인간과 역사와 우주는 새롭게 된다. 하나님의 권능으로서의 성령은 역사안에 자기의 의를 실현키 위하여 역사 전체를 창조, 변혁, 완성의 과정을 통하여 장악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자기 백성에게 주어진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종말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을 성령의 보편적 임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여 그 운동을 지시하고, 그 회원을 지배하고, 그 지혜를 고무하고, 그리고 그 활력을 공급한다.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고, 그 회원들을 성결케 하고, 또 증거를 위한 힘을 부여하신다. 교회의 임무는 성령을 섬기고, 그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의 힘을 전달하는 것이며, 성령은 부르시고, 주시고, 지배하시고, 영을 부여하시고, 또 힘을 주신다. 성령께서는 조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는 건물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사신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안에 사시고, 그 때문에 활동을 지시하고 그 능력을 부여하며 그 회원들을 격려하여 굳세게 하신다.

성령은 교회에서 복음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다리 놓는다.<sup>50)</sup>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한 자의 공동체이다. 성령이 부어지는 곳에 새로운 공동체가 동시에 생성된다. 다시

---

50) 빌헬름니이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3), p.222.

말하면 인간이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 그때 그곳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어난다. 그런데 루터는 철저히 교회(Kirche)란 말 대신에 모임(Gemeinde)이란 말을 썼다.<sup>51)</sup> 이처럼 교회의 뜻은 집합체, 즉 하나님의 사자의 호출이나 전령관의 나팔소리에 모여온 민중들의 공동체를 일컫는다.<sup>52)</sup>

실로 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한 자들의 모임체이다. 인간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곳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강조하기를 “성령의 역사에 기초하지 않고서도 교회에 관해 논의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sup>53)</sup>

우리들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화합케 하는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시는 능력만 믿는다. 정녕 현실적인 교회는 많은 모순점이 있다. 하지만 오직 교회안에서 성령을 믿으며 그 안에서 성도의 사권을 힘쓰며, 부르심의 공통된 목적을 이룬다.<sup>54)</sup>

교회는 옳다고 인정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방받은 자, 구원을 경험한 자, 그리고 감사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역사의 의미를 성취하는 도중에 있다. 전적으로 그

---

51) 심일섭, “성령이해의 혼란속에 있는 성령”, 『기독교사상』 제27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6), p.149.

52) 칼바르트, 『바르트교의학 개요』, 전경연역(서울:성문학사,1983), p.205.

53) 심일섭, op.cit., p.149.

54) Ibid., p.150.

리스도를 바라보며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산다.<sup>55)</sup>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이고, 그의 목적을 성취하는 장소이며, 또 그의 임재하는 장인 것이다. 교회로 하여금 산 하나님을 전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이다. 현대의 교회의 근본적인 것은 교회가 성령보다도 이 세상과 육적인 것을 더 신뢰하고 있는데 있다. 성령은 교회를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다. 교회는 성령의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성령과 교회의 상관성

교회의 출발은 성령의 역사 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성령으로 인도된 예수님의 지상 활동은 교회에 인계된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함으로써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현존해 주실 것을 말해 주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각종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통일하시고 다스리신다. 따라서 성령과 교회는 서로 분리되어질 수 없다. 교회는 자연 역사의 현상이 아니고 성령의 창조이며, 교회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을 떠나서 교회의 선포가 없고 선포를 떠나서 교회의 목적이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복음이 없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영역, 즉 하나님의 계시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장소이며 여기서 성

---

55) Ibid., p.151.



령은 역사한다. 신앙, 회개, 의인, 사랑,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난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사건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그것이 나에게 현실적이 되게 한다.<sup>56)</sup> 오늘 한국 교회도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참된 교회로서 존립할 수 없다.<sup>57)</sup> 성령의 역사를 힘입을 때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 3. 성령님의 교회에 대한 행동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었다.<sup>58)</sup>

성령은 교회를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고 교회가 성령의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으로 있고 하나님의 심판아래 있기 위해서이다. 교회는 성령의 힘에서 사는 공동체이다.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있을 수 없다. 교회를 말할 때 반드시 성령이 말해져야 한다.<sup>59)</sup> 또한 교회는 하나님을 봉사하는 공동체로서 세상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sup>60)</sup>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교회 자체의 확장이 아니라 성령안에서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영

---

56) Ibid., p.120.

57) 전병호, “성령의 움직이는 교회”, 『기독교사상』 (서울:기독교서회, 1978. 6), p.169.

58) 요3 : 16

59) 박봉량, op.cit., p.122.

60) 사11 : 9

광이 교회의 목적이다.<sup>61)</sup> 교회는 계속되는 운동의 도구일 뿐이다. 전체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누룩으로서 세상과 관계하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교가 수행된다.

바울사도는 성령의 여러 은사중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한다.<sup>62)</sup> 진정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소리만 요란한 “쟁가리”가 될 수 밖에 없다. 성령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는 먼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사랑을 갖지 못한 언어나 방언으로 소리친다 해도 하나님의 영은 없다.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자기를 과신하거나 교회의 질서를 준행하지 않고 패거리를 만드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다. 오히려 성령을 거스리는 자이다. 성령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다.

교회는 현실 도피처가 아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교회는 사회속에 빛을 발함으로 사회로 하여금 자신을 발견케 하여 책임적인 존재가 되게 한다.<sup>63)</sup>

이상의 궤도를 벗어난 일부 한국교회의 잘못된 “성령운동”의 문제를 성서를 근거로 하여 여러 각도에서 성령과 교회의 상관성 속에서 살펴 보았다. 다시 간추려 본다면 교회를 떠난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 성령

---

61) 폴트만, 박봉량 외 4인역, 『성령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서울:신학연구소,1980), p.23.

62) 고린도전서12:

63) 남의도,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영가』(대구:대봉교회 고등부회지, 1983.12), p.18.

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반면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 또한 존재의 가치가 없다. 성령과 교회는 상호 관계성 속에 있다. 교회론적 이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교회는 사랑과 선교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 D. 학자들의 교회론 이해

### 1. 어거스틴의 교회론

어거스틴 시대의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의 상상력은 교회관에 그대로 못박혀져 있었다. 이 교회는 ‘강력한 여인상’이었다. 어거스틴은 “우리로서 또 다른 여인을 말하는 것이 정중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모니카의 판단에 의하면, 어머니들의 힘이 만만치 않은 세력으로 큰몫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가톨릭 교인들에게는 가톨릭교회가 바로 어머니였다.<sup>64)</sup>

한 분 어머니께서 많은 자녀를 생산하셨다. 우리 모두는 그 어머니의 소생이며, 그 어머니의 젖으로 영양을 공급받았으며, 그 어머니의 영혼으로 우리는 생기를 얻었다.<sup>65)</sup>

---

64) 피터 브라운, 차종순 역, 『어거스틴 생애와 사상』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1993), p.305.

65) Ibid., pp.305-306.

교회는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였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기갈되어서----그리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교회에 나오기 보다는 전쟁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는다는 시편이 아프리카 교인들의 묘비명에 두드러지게 새겨져 있었다.<sup>66)</sup>

만일 교회가 ‘순수하다’고 인정받으려면, 그 교회 안에만 유일하게 성령께서 내재하신다면 어떻게 그러한 교회의 교인들이 ‘순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적인 사상체계내에 몸을 담갔던 사람이었다. 그는 전세계를 형성되고 있는 세계로, 불완전하게-실현된 형상으로서 이데아의 형상의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완성을 성취시키려 하는 계층구조로 보았다. 이 우주는 지속적이며 동적인 긴장상태에 있으며, 이 안에서 물질의 불완전한 형상은 오로지 마음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확정적이며 이상적인 구조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sup>67)</sup>

어거스틴의 교회관도 이와 동일하였다. 교회의 의식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을 지닌다. 어거스틴이 보는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다.<sup>68)</sup> 따라서 교회의 의식은 객관적이며 영속적인 효용성을 갖는다. 교회의 제반 의식은 그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우수성에 관계없이 존재한다. 세례와 임직의 물리적인 의식은 참여자의 의식적인 우수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의식을 받아들

---

66) Ibid., p.306.

67) Ibid., p.319.

68) Ibid.

이는 사람에게 영속적인 징표로서 ‘낙인’처럼 남는데, 어거스틴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69)</sup>

도나투스주의자들의 교회관은 일종의 바위와 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거스틴의 교회관은 원자의 입자와 같다. 그의 교회관은 유동적인 요소로 구성된 동적인 긴장관계의 터전으로서 항상 폭발의 위험을 안고 있다.<sup>70)</sup>

어거스틴의 교회관은 정복전쟁의 벼랑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어거스틴의 생각에는 이처럼 응집력이 강한 결속은 로마사회 전반을 통해서 이 기관적으로부터 소진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질 것 같았다. 감독들이 이미 거대한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으며, 어거스틴은 그와 같은 공동체는 일정한 엄정성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sup>71)</sup>

어거스틴은 도나투스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최초의 소책자를 펴내기 10년 전부터 이미 결정적인 조처를 취하였다. 궁극적으로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자기네 교회는 방주처럼 피난처로서 이 세상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하였다. 어거스틴은 교회란 인간 사회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하나로서 공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관계에 상존하는 결속을 흡수해서 변화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었다.<sup>72)</sup>

어거스틴의 교회론은 시프리안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적인 토대 위에서 어거스틴의 자신의 교회론을 정립하였다. 그러므

---

69) Ibid., p.320.

70) Ibid., p.322.

71) Ibid.

72) Ibid., p.323.

로 그의 교회론은 더욱 발전하여 서방 교회론의 역사에서 최초로 종합적인 정리를 한 신학자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어거스틴의 교회론의 기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스런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상이다. 여기에서 몸과 머리는 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몸이 없으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몸소 몸을 낮추어 우리와 더불어 온전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없이도 온전하시고 전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이 머리와 몸의 완전한 통일의 관념에서 교회를 “전적인 그리스도”, “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한 인격” 등으로 말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교회의 표식은 통일성과 보편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어거스틴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하여 “교회는 오직 하나만이 있으며, 그리스도도 하나요, 신부도 하나이다.”라고 주장한다.<sup>73)</sup>

어거스틴에 의하면 교회는 첫째로, 신앙의 통일성을 가지며, 사랑의 일치성을 가지는데 어떤 사람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단자는 면할 수 있을 지언정 사랑의 통일성에 위배되면 역시 분열 주의자나 이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이 통일성의 원리는 유기적인 것이지 제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비록 순교자라 할지라도 이 신앙과 소망과 사랑의 통일을 깨뜨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회는 사랑으로 묶여져야 하고 그 사랑은 수 많은 죄를 덮어준다고 믿었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은 그 사실로 인하여 사랑

---

73)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제1권」,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8), P.25.

이 결핍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이 결핍된다고 보았다.

교회론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통일성과 일치성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카톨릭적 전통에서 벗어나 분리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로 보며, 비록 순교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일치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교부들이 교회를 “거룩한 창녀”라고 부른 것은 의미있는 말이며, 이와 같은 개념 안에서 어거스틴은 교회안에 죄인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자르는 것이라고까지 말하였던 것은 죄인이 있으나, 거룩한 교회를 강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거스틴은 교회의 거룩성은 구성원이나, 성례 및 개인적 성화의 산물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거룩하고, 성례는 그리스도의 행동이기에 거룩하다라고 말하였다.

어거스틴은 교회에서 분리되 나간 행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분파운동은 비록 순교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성례전의 타당성등을 교회의 객관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어거스틴에 의해서 교회의 새로운 신학적 개념들이 도입되었는데 그의 의해서 처음으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개념 등이 나오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어거스틴에 의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이 타락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교회의 양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교회론은 성례전을 매우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러

한 그의 신학은 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성례전을 중요시하는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교회론의 특징은 교회의 통일성과 권위에 두었으며, 교회 안에서만 진리와 구원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교회는 어머니 같이 성도들을 이끌어 나간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길목에 있으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된다.

## 2. 칼 바르트의 교회론

교회 중심적인 바르트의 교회론을 봄으로써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며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는가를 성찰하며, 그렇지 못한 점들을 반성해 보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교회의 전통적 이해와 시대의 도전 가운데서 교회의 중요성을 질서 있게 체계화했던 칼 바르트(Karl Barth)의 교회론을 살펴 보자.

그는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야기했던, 위기에 직면하여 신학과 교회를 정체성의 위기로부터 구출해 낸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이다. 그의 책과 글 그의 사상과 신학은 신학생들의 서재에만 머물지 않고 20세기 교회의 실생활에 침투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정한 교파나 교회, 혹은 신학 사조의 그룹에 머물지 않고 20세기의 교회의 공동 유산이 되었다.<sup>74)</sup>

바르트의 위대한 공헌은 신학의 현실을 교회의 신학으로 전개함으

---

74) 박봉량, 『신학의 해방』 (서울:대한기독교서회,1991), pp.396-399.



로써 신학의 과제를 교회를 위한 학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교회란 더 높은 뜻에 의해 형성되고 보존되는, 내적으로 필연적인 공동체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이 세상에서 개인의 불행한 처지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공동체는 집합이나 무더기가 아닌, 질서정연한 조직의 형태를 띠는데, 결코 자신을 위하지 않고 매우 활동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한다. 그러므로 분명해지는 점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기계적 일치가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적 일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지체들로 형성된 일치라는 것이다. 물론 이 공동체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몸’ 사상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따라서 바르트의 교회론은 이 사상을 근본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르트에 의하면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블룸하르트를 통하여 바르트는 하나님이 세상의 전적인 갱신자이며 세상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새로운 자임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요, 그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기체요 그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신실로부터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성향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의의 성장,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로 이식되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존재한다.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하시고,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을 주시며,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그 진정한 목표로 이

끌어 가신다는 사실에 깊은 확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분의 말씀이 없이는 존속하거나 번영할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하여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해야 한다.<sup>75)</sup>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위로의 능력을 받아 은총을 입은 죄인들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분부에 따라 죄많은 세상 한 복판에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증언 봉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속에 반복하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명확한 반복이다.<sup>76)</sup> 즉 그것은 특정적인 시대와 그 가능성으로 인해 규정되는 고백이다. 그러므로 고백은 불가피하게 교회와 세상을 움직이는 그 시대의 질문 속으로 개입해 들어가면서 수행된다. 바르트는 교회의 임무를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요약하고 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자로서 그 시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역할을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바르트의 교회관은 어디까지나 실재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연결되는 것은 어떠한 기구나 조직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개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르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sup>77)</sup> 교회와 교

---

75) Ibid., p.166.

76) Ibid., p.168.

77) 윤성범, 『칼 바르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1968), p.180.

회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교회 위에 있는 어떠한 통치 기관이 아니요, 바로 교회 자체인 것이 드러나며 이러한 유대와 연결은 성령의 역사임이 밝히어진다.

바르트는 세계교회적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교회적 교리 혹은 고백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여러 종파의 교리를 초월한 보편적인 교리란 중성적인 것이요, 관념적인 것으로 이미 생명을 잃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오직 세계교회협의회가 할 일은 모든 개체 교회가 문제삼고 있는 문제를 언제나 문제삼아야 하며 그것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sup>78)</sup>

바르트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설립과 더불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교회는 자신에게 부여된 전권에 힘입어 세상으로 보냄 받음으로써 그 자체상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바르트는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및 선포된 말씀의 세 가지 형태를 가진다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만이 성서의 거룩함과 통일성을 교회에게 주실 수 있으므로 교회는 성서의 증언을 굳게 붙들고 그 전체를 주석하고 선포하기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성서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를 부여해 주며 교회는 자신의 존재와 본질을 이루는 성서에 대하여 순종의 관계에 있다. 진정한 교회의 인간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적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사건 속에서 이루어

---

78) Ibid., p.181.

지며, 이 공동적인 성격이 구체화되는 것은 교회의 고백 속에서이다.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로써 교회가 생겨났음을 말하고 있다. 성령은 교회를 각성시키고, 소생시키며,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회집되고 생동감을 얻게된 인간들의 활동 안에서 일어난 것이 성도들의 교제이다. 또한 바르트는 교회의 질서가 그 본질에 있어 필수적이며 이것은 명백하게 기독교적, 교회론적 개념에 따라 형제애적 그리스도 통치의 형태로, 즉 봉사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교회는 세계사의 한 복판에 서서, 그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며, 교회는 그 자체상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바르트는 말하고 있다.

## IV. 칼빈의 “어머니로서 교회” 토대인 「기독교강요」

### A. 「기독교강요」 이해

1534년 칼빈은 파리 대학 취임 연설문이 문제가 되어 방랑 길에 올라 여기 저기를 떠돌다가 1535년 1월에 바젤로 오게 되었다. 그곳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카톨릭으로부터 잔인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저들을 변호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유명한 기독교 강요가 되었다. 그 때 그의 나이는 겨우 26세에 불과했다. 그의 저서를 본 많은 학자들이 그를 ‘복음주의 신앙의 최상 위에 있는 개혁파 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라 하면서 극찬을 했다.

카톨릭에서는 이 책에 대해 혹독한 비평을 하고 말살하려 했지만 복음 주의자들은 이 책의 출현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사도 시대 이후 가장 명석하고 확신에 넘치는 기독교 진리의 변호라고 했다. 그는 이 책의 첫 출판으로부터 23년 동안 끊임 없이 수정 개정 작업을 했다. 그의 첫 출판은 1536년에 시작이 되고 그의 마지막 출판은 1559년에 마는데, 그 두 사이에 사상적인 변화와 차이가 전혀 없었다. 즉 성경에 관한 지식은 점점 깊어졌으나, 처음의 사상과 신앙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으니, 그가 처음부터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학식을 가졌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성경에 입각하여 추호도 틀림이 없는 상태에서 첫 출발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칼빈의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심원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저자의 특징이 되는 충실한 해석과 조직화를 위한 세심한 관심” 등을 보게 된다. 만일 이 저서가 없었다면 루터가 죽은 후 신교는 극심한 신학적 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오늘과 같은 말씀 위에 바르게 선 교회가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다.

## 1. 「기독교강요」의 역사

초판은 1536년 1월에 바젤에서 기독교강요(Christian Religions Institutio)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이 초판은 총 6장으로 되어 있다. 1년이 못되어 라틴어로 쓰여져 소수의 사람밖에 볼 수 없었던 초판이 매진되고 1539년 새로운 라틴어 기독교강요를 출판했다. 이 때 그는 책이름을 바꾸어 (Institutio Christian Religions )라고 했고, 6장이던 것이 17장이 되었다. 재판에서 칼빈은 그 서두를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그는 삼위일체론을 상당히 확대해서 해석했다. 1541년 재판이 나온지 2년 후에 기독교강요는 모국어인 프랑스로 이 책을 번역 출판했다. 그리고 이 책은 프랑스의 고전이 되었다. 1543년 그는 라틴어판 기독교강요를 다시 출판했다.

그리고 1545년에 이 책을 프랑스로 번역 출판했다. 세 번째 판은 17장에서 21장으로 늘어났다. 그는 이 증보판에서도 서약과 인간의 전통에 관한 것들을 논했다. 프랑스 판이 나온지 5년 후에 즉 1550년에 또 증보된 라틴어판이 나왔으며, 1551년에 프랑스 번역판이 다시 나왔다. 그리고 그 해 다시 재판을 만들었다. 1550년과 1557년 사이에 이 책은 무려 7판을 출판해야 했다. 1550년 판에서 그는 성경과 그 권위, 성자의 형상 예배, 양심에 관한 설명을 했다. 그는 새로운 판을 낼 때마다 새로운 인용문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그가 끊임없이 고대의 저작들을 읽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기독교 강요의 결정판은 1559년 라틴어판과, 1560년 프랑스어 판이다.

## 2. 집필동기와 목적

기독교강요는 라틴어로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인데, institutio(강요)란 '원리들' 혹은 '주된 교의적 주제들'을 의미한다<sup>79)</sup>. 따라서 기독교강요는 신학의 모든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주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sup>80)</sup> 이와 같은 칼빈의 기독교강요는 자신이 가장 중시한 책이며, 칼빈주의의 전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sup>81)</sup> 이 안에는 칼빈 사상의 종합적인 이론이 나타나 있으며, 그 자체로서 충분한 이론서가 된다.<sup>82)</sup> 그러므로, 칼빈과 칼빈주의에 있어서 기독교강요는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칼빈이 이 기독교강요를 집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기독교강요 초판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칼빈이 기독교강요 초판을 작성하여 출판하게 된 해인 1536년에 그는 독일의 바젤(Basel)에 있었다. 그가 자신의 고향인 프랑스의 노용(Noyon)을 떠나 바젤에 머무르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아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오는 사람들의 방해받지 않고 공부를 계속하고자하는 욕망 때문이었고, 둘째는 당시 프랑스에 있었던 프로테스탄트의 박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

---

79)John Calvin,「기독교강요 요약」, 지원용 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1984), p.15.

80)Ibid.

81)Francois Wendel, 「칼빈주의 신학 서론」,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기독교 문화사, 1986), p.121.

82)Ibid.

다.<sup>83)</sup>

한편 칼빈이 바젤에 있는 동안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었고 그러던 중 칼빈의 용감한 친구인 에띠엔 드 라 포르즈(Etienne de la Forge)가 사형에 처해 졌다.<sup>84)</sup> 이에 대해 프랑스왕(프란시스 I 세,1515-1547)은 희생자들에 대한 외국의 동정을 막기 위해 2월 1일의 선언에서 처벌당한 자들은 단지 재세례파들과 내란음모를 꾸민 자들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그들은 신실하고 성도다운 사람들이었으며 거룩한 순교자들이었다. 왕이 잔인성 위에 중상의 죄까지 더했다는 사실은 절대 불문에 붙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강요를 출판하기로 결심한다.<sup>85)</sup> 그러므로 칼빈이 기독교강요(초판)을 출판하게된 목적은 동료 신자들에 대한 거짓된 비난을 옹호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할 수 있다.<sup>86)</sup>

그러나 이것만이 기독교강요가 쓰여진 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강요 초판 자체에 칼빈 자신이 이 책을 집필했던 원래의 목적을 밝혀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어떤 기초적인 사실들을 전달함으로써 그것에 의해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하기 위한 것’이다.<sup>87)</sup> 결국, 기독교강요 초판의 원래 목적은 기독교의

---

83)John T. McNeil,「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양낙홍 공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1990), pp.137-139.

84)Ibid.

85)Ibid., p.110.

86)Alvin Roy Sneller, 「칼빈주의 신학과 선교」(서울:성광문화사,1987), p.297.



기초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주변 상황에 의해 박해자들에 대한 옹호의 성격을 띠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기독교강요 초판에 대한 집필 동기와 목적을 알아 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될 재판들과 최종판의 집필 동기(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1539년에 독일의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출판된 기독교강요 제2판에서 칼빈이 독자들에게 간단히 쓴 서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원하는 신학 후보생들에게 준비를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기독교강요 최종판인 1539년판(제네바)에도 ‘신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읽기위한 준비를 하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었다.<sup>88)</sup>

그러므로, 종합해 볼때 기독교강요는 처음에는 기독교의 기초적인 사실들을 설명하고 자기 동료들의 신앙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학생들을 위한 성경교리의 요약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89)</sup>

## B. 「기독교강요」 출판과 원천

---

87)John Calvin,「기독교강요(초판)」 양낙홍 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1990), p.45.

88)Ibid., p.147.

89)Ibid., p.145.

## 1. 「기독교강요」 출판과 원천

「기독교강요」 최종판은 1559년 제네바의 로베르 에띠엔(Robert Etienne) 출판사를 통해 나왔으며,<sup>90)</sup> 다른 해에 불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sup>91)</sup> 이것은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sup>92)</sup> 전체4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권은 신론으로 모두 18장이며, 제2권은 기독교론으로 총 17장이고, 제3권은 성령론으로 25장으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 제4권은 교회론인데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총 80장이다.<sup>93)</sup>

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판은 칼빈이 극도의 병마에 시달리면서 다가오는 죽음의 불안과 함께 자신의 저서의 새롭고 최종적인 결정판을 출간할 것을 결심하며 쓴 것이다.<sup>94)</sup> 둘째, 과거의 판들과 비교하여 수정이 거의 없다. 칼빈 역시 자신의 저서에 어떤 결함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결점들을 보완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이러한 이유의 첨가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저서를 거의 수정하지 않았다. 주요한 개정은 대체로 보다 체계화된 구상과 본질적인 논리에 따라 내용의 새로운 배열에 역점을 두고 행해졌다.<sup>95)</sup> 셋째, 최종판은 개혁주의 신교의 신학적 대전(Theologica Summa)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칼빈주의 정통주의의

---

90) John T. McNeil, op.cit., p.146.

91) 이근삼, op.cit., p.52.

9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요약」, op.cit., p.100.

93) Ibid., pp.91-99.

94) Francois Wendel, op.cit., p.127.

95) Ibid., p.130.

급진적 성장의 큰 배경이 되었다.<sup>96)</sup>

## 2. 「기독교강요」의 원천

앞서 우리는 기독교강요의 형성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 보았다. 그런데, 모든 철학적, 도덕적, 신학적 이론의 역사는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사상으로 보여지는 이론도 실제로는 그 주창자의 창조적인 힘보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진 기존의 사상을 새롭게 배열하는 독창성에 더 많이 기인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sup>97)</sup> 칼빈 역시 이 일반적 법칙에 예외적인 인물은 아니며, 따라서 칼빈 역시 선대의 여러 업적과 사상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과업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sup>98)</sup>

그러면 칼빈이 자신의 기독교강요를 쓰는데 참조되었던 사상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웬델(Wendel)은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종합하고 있다. 첫째, 다른 어떤 개혁가 보다도 구약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초기 교회의 교부들의 많은 저서들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미스티우스(Themistius), 키케로 뿐만 아니라 존 크리소스톰, 오리젠(Origen), 어거스틴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인용하였다. 초기에 칼빈은 그리스 교부들 중에서 크리소스톰을 특히 선호한 것처럼 보이며, 점차 어거스틴의

---

96) 이근삼, op.cit., p.52.

97) Francois Wendel, op.cit., p.123.

98) Francois Wendel, op.cit., p.123.

영향이 증대하였다. 특히, 교리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어거스틴에게서 차용하였다. 세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중세의 일부 사상에 보다 밀접해 있다.(어떤 신학자는 그 근거를 로마법의 영향이라고 보기도 한다.) 네째, 우리는 칼빈의 보다 동시대의 요인 중에서 인본주의자들과 개혁가들에게 당연히 초점을 맞추게 된다. 칼빈이 영향받은 인본주의자들로는 발라(Valla), 에라스무스(Erasmus), 부드(Bude)등이 있으며, 개혁파들로는 루터, 멜랑톤, 부처등이 있다.<sup>99)</sup>

## V. 망원경적으로 본 “어머니로서의 교회”

### A. “어머니로서의 교회” 어원론적 이해

어머니를 교회와 연관하여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한 칼빈은 놀라운 신학함이다. 이것은 근시안적이 아니고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원시안적이다. 망원경으로는 멀리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칼빈의 어머니를 숲속의 나무보다는 숲을 바라보는 망원경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어머니”의 용어에 대하여

---

99) Ibid., pp.133-135.

어머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던지는 단어다. 이 어머니의 단어에 대하여 사전<sup>100)</sup>에는 다양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말에서 사람이라는 말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란 [살]이란 말과 [암]이라는 말이 합쳐서 된 복합명사입니다. [살]이란 우리의 육체, 살덩어리를 말합니다. 어렸을 땐 보드랍고 젊을 때는 팽팽하며 늙으면 흩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입니다. [암]이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하고 똑같은 후손을 번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짐승을 말합니다. 소나 닭을 보고 여자 소, 남자 소 하지 않고 암소, 숫소 또는 암탉, 수탉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쓰이면 [어머니]란 뜻이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맺은 좋은 관계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사람들과 나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될 때 사람들과도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살아

---

100) 엔싸이버사전에 어머니[명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 자기를 낳은 여자. 모친(母親).
2. 자기의 ‘양어머니·새어머니·수양어머니’를 이르는 말.
3. ‘자식을 가진 여자’를 대접하여 일컫는 말.
4. ‘사물을 낳는 근본’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진실한 크리스찬의 생활이며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sup>101)</sup>

## 2. “어머니”와 “교회”의 연관성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 3 권에서 “ 참 교회에 관하여 그것은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와 일치되어야 한다.”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mater fidelium)라는 개념을 크게 발전시킨 것은 칼빈이었다. “ 교회가 어머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복음의 보고를, 선교해야 하는 것으로 위탁했다는 한도 안에서 그렇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는 동시에 구분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나무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요 회망하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지만 교회에 대하여 미래로 남아 있으며, 교회의 소유물이 되지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교회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는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다른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였다. 따라서 교회는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사회와 세계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sup>102)</sup>

---

101)“어머니와 자녀상담” <<http://kcm.co.kr/family/data05.html>>에서 발췌하였다.

102) 주연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하나

교회의 기능을 보면, 어머니의 속성과 같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다. 최후 목숨까지도 자녀를 위하여 기여한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부른다. 그리고 최후 어머니의 그늘에서 잔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길을 찾아 교회에서 안식한다. 교회에서 흘러 나오는 영의 젖을 먹는다. 교회는 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친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본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길 잃은 과 상처입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품같은 교회를 통하여 치유를 받는다.

교회와 어머니의 역할의 상관관계를 “교회는 어머니요, 어머니는 교회다.”라고 필자는 말한다.

## B.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4권을 통한 “어머니로서의 교회”

칼빈은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사람은 적다고 자기 시대의 상황을 개탄하였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안내서로서 「기독교강요」를 평생에 걸쳐 썼고 또 썼던 것이다.<sup>103)</sup> 「기독교강요」는 성경의 길라잡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모여서 사귀는 곳이요, 하나님의 선택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 순례하며 하나님께 영광드리

---

님의 나라와 케리그마”, p.302.

103) 최태영, “성경속에서 찾는 진리,” 『영신학보』 2002년 11월 28일: 5.

며 사는 백성이다. 교회는 신자들을 교육, 훈련, 보호하는 어머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산 유기체, 기능적 일체, 그리스도 사역의 연장으로서의 성격<sup>104)</sup>라고 기술할 수 있다. 칼빈은 그의 주저인 『기독교강요』 제4권에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

## 1. “어머니로서의 교회” 배경

어머니라는 용어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문자적으로는 연약한 것을 던진다. 의미론적으로 바라보면 강력한 여인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 어머니는 약하게 보이지만 강력하다. 우유체 같으면서도 강건체이다. 어머니는 변화를 의미한다. 어머니는 폭발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재생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손과 품에 안기면 변화하고 폭발하고 재생하는 것이다.

구약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훌륭한 성서적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실패작 같은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

칼빈은 사상적으로 어거스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인생관이 어머니의 영향이 컸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컸으리라 본다. 그의 공허

---

104) 박근원,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조향록편(서울:한국신학대학출판부,1978), pp.165-168.



한 가슴에 어머니라는 용어로 교회를 의인화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2. 제4권에 나타난 “어머니로서의 교회론”

기독교강요 제Ⅳ권의 초점은 교회론에 있다. 여기에서 칼빈은 교회의 본질과 그 기능, 교직, 성찬론 및 (교회와) 국가론을 전개한다.<sup>105)</sup>

1541년도 제네바 교회 규범은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전개하고 있는 교회론을 실천적 관점에서 옮겨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와 목회에 대한 적극적 자세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559년에 나온 「기독교강요」 최종판은 전체가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4권은 교회론을 주제로 한다.<sup>106)</sup>

칼빈은 먼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인 교회인 것이다. 그 어떤 인간도 어머니의 양육 없이 품을 떠나서 성장할 수 없듯이, 인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sup>107)</sup> 칼빈은 거듭 교회의 막중한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였다.

즉 모든 인간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성인이 되는것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108)</sup>

---

105) 존 칼빈, 『기독교강요 요약』 이형기 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1990), p.353.

106) 황정욱, “칼빈의 새로운 교회관과 목회”, 『기독교사상』 제455권(1996. 11), P.66.

107) Ibid.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들과 직접 상관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지상적 수단을 통해서 인간들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말을 바꾸어서, 만일에 교회가 어머니로서, 학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코 올바른 의미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sup>109)</sup>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교회를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칼빈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재차 강조한다.<sup>110)</sup>

칼빈은 다시 가시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온다. 바울이 말한 대로 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하나이며, 그것에 속한 지체로서의 성도들은 그 안에서 상호 친교를 나누게 된다.<sup>111)</sup>

정리해 보면, 칼빈은 교회관을 논하면서 두 개의 적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세례파와 로마 카톨릭교회가 그것이다. 칼빈은 로마 카톨릭교회가 교황청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교황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에 이단자로 몰아서 징계하는 방식이 결코 참된 의미의 카톨릭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양육을 위해 제공한 어머니와 같은 지상적 수단,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듯이 하나인 교회, 그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 선택된 백성의 모임으로서 그 본질을 규정하고 있다.<sup>112)</sup>

---

108) Ibid.

109) Ibid.

110) Ibid., p. 74.

111) Ibid.

칼빈은 성도의 교제를 교회 일치의 다른 표현으로 보았고, 이 정신에서 적어도 신교 내의 일치를 추구하였다.<sup>113)</sup>

한편, 위에서 서술한 대로 그의 교회관은 「기독교강요」 초판 이래 거듭되는 현실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발전을 거듭하였다. 처음부터 그에게서 교회는 인간 위에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선포를 위해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로서 이해되었다. 따라서 그의 과제는 새로운 교회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었고, 여기에 종교개혁의 과제를 보았으며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종교 개혁자였다.<sup>114)</sup>

그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독교강요」의 마지막 제 4권은 교회론보다는 교회조직적 면을 주로 다룬다. “교회의 참된 위엄은 내적이다.”<sup>115)</sup> 교회란 기존의 카톨릭 교회가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교회들이 바로 하나의 보편적 교회라는 시각이다.<sup>116)</sup>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만 형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분리주의적 모형을 암시한 것이다. 칼빈에게는 그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재세례파에 가까운 면도 있었다. 그는 성찰이 공동체의 의식인 동시에 그것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미리 알려 주어야 하기 때문에 성찬을 높이 평가했다. 또 그는 교회를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 그가 생각해

---

112) Ibid., pp. 74-75.

113) Ibid., p.80.

114) Ibid.

115. W.J. 부스마, 『칼빈』 이양호, 박종숙역(서울:도서출판 나단, 1991), p. 11.

116) 이오갑, 『목회와 신학』(서울:두란노, 1994.9), p. 286.

낸 최종적인 방안은 파문이었으며, 파문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성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었다.<sup>117)</sup>

칼빈에게 있어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로서 신학교보다는 인문주의적 학원에 더 가까웠으며,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그의 학생들의 어깨 위에 살펴보고 “그들의 제스처와 걸음걸이 말, 그리고 그의 “모든것”을 지켜보는 분으로 생각했다.<sup>118)</sup> 그는 또 때때로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 시켰다. 이런 생각들이 그의 정신을 지배했을 때 교회에 대한 그의 이해는 더 이상 배타적이 아니라 포괄적이 되었다.<sup>119)</sup>

## VII. 칼빈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와 주소인 하나님의 나라

### A.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주소는 하나님 나라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전하여야 한다. 필자는 어머니의 품을 하나님나라와 의미론적으로 생각하였다. 어머니의 품은

---

117) W.J.부스마, *op.cit.*, pp.520-526

118) *Ibid.*, pp.526-527.

119) *Ibid.*, p.530.

안식이 있다. 어머니의 품은 먹거리가 있다. 어머니의 품은 돌봄이 있다. 어머니의 품은 치유가 있다. 어머니의 품은 따스함이 있다. 어머니의 품은 평안이 있다. 어머니의 품은 포용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품을 가진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 곁에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라고 개인 고백한다. 하나님나라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다. 평안이 넘치는 곳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주소는 하나님 나라이다. 그곳을 가려면 어머니로서의 교회에 입교할 때 길은 열릴 것이다.

## 1. 교회와 시대적 정황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와 인간 사회의 관계를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논제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다. 사실 이 주제에서 사상들이 가장 많이 나누어질 정도로 이 주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정치 참여와 어려운 관계에 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참여를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수직관계의 방법을 지지한다. 복음주의자는 하나님과 교회의 수직자리에서 운운한다. 이로 인하여 시대와 단절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시대는 수직적 관계를 도외시하고 있다. 옷은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은 것 같은데 행함은 짐승과 같다. 개가 토한 음식을 도로 삼키고 먹는 더러움을 연출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개의 소리를 하는 견유학파가 되어 있다. 개 같은 소리에 이 시대는 개판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불편한 시대적 정황은 수직적 관계를 등한히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더욱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수직보다는 수평적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수직적 관계보다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수평적 관계에 빠져 있다.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만 한다. 교회와 세상은 광야의 매마른 뼈가 되어 있다. 말씀이 없어서 생기가 없다. 사람의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이 없다. 영적 기갈상태이다. 이 시대 진정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생기이다.

## 2. 칼빈의 하나님의 나라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성경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많이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신약신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칼빈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가시적이거나 유형적 개체를 말하지는 않는다. 조직체도 아니고, 집합체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개체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또는 천국은 이 세상의 공동체의 집합체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생각해 볼 때 현세적인 그 어느 것이라도 구분되어지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영적 실체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실체는 하나님이 힘, 통치 또는 지배에 의하여 드러난다. 칼빈은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 전에 우리의 본질을 탈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개념은 영적이요, 구원론적이다.

## B. 이 시대 칼빈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 1. 세상 안에서 “어머니로서의 교회” 위치

세상은 교묘하게 맞지 않는 신발을 엉뚱한 발에 신기고 있으며, 칼로 영혼을 다스리고 문자로 육신을 다스리고 있다. 자유를 필요로 하는 신앙의 영역과 법과 강제에 기초한 외적 권위에 놓여 있다. 크리스찬의 삶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로 식별할 수 없는 표지판에 의해 세상은 기형아가 되고 말았다. 악이 판을 치고 있다. 악이 승리하지 않도록 불의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질서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불의에 견디어야 한다. 이러한 세상 안에서 확고한 충족을 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말씀의 선포와 함께 사는 질서를 마련하여야 된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악인들을 억제해야 한다. 바로 외부 적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이 교회뿐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세상에 질서를 유지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함이다.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죄로 찢겨진 세상 안에서

최악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불의에 견디며, 기꺼이 즐겁게 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세속을 뚫어야 한다. 이것은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할 필연적 전쟁이다.

## 2. 이 시대와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관계

이 시대는 속도를 요구한다. 속도를 따라가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시대와 교회의 속도는 어떠한가? 어쩌면 교회는 너무 더디게 사회를 따라가는 것 같다. 정보도 문화적 수준도 이 시대와 비교가 안될 만큼 차이가 난다. 속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속도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빠름을 강조하지만 생각의 속도에는 뒤진다. 이점에 교회는 시대를 파악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세상은 과속하지만 신앙에서는 감속이다. 아니 멈춰 있다. 그래서 시대적 악순환이 펼쳐져 있다. 이에 필요한 연결고리가 어머니로서의 기능이다.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왜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였는가. 어머니는 자녀를 생산하는 것처럼 교회는 믿는 자를 계속해서 생산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sup>120)</sup>

신앙의 자녀를 자꾸 생산하면 세상의 속도로 엉망된 시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영적인 속도는 어머니에 의해 폭발한다.

---

120) 이윤근, 『교회론』 (서울:성광문화사, 2001), p.34.



교회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으로 믿는 자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어머니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칼빈이나 루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머니 또는 구원의 어머니(The mother of salvation)라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자녀를 생산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복음으로 성도들을 생산하여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sup>121)</sup>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임무를 다하여 된다. 어머니로서의 생육과 양육의 임무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단백질이다.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나를 위해서-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두 개의 관점에서 새롭고도 생생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적인 관계를 믿는 신앙의 발로가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끈끈한 임무이다.

칼빈에게서 교회는 또한 신자의 어머니이다. 교회는 외적인 수단이며 도움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로 이해하였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는 불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가시적 교회이다.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제도적 입장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젖을 아이에게 주듯이 어머니로서의 근원적 임무는 말씀을 공급하여야 한다. 수유를 잘할 때 훌륭한 어머니이듯, 교회가 말씀을 잘 먹일 때 양들은 건강해 지는 것이다.

---

121) Ibid., p.35.

## Ⅶ. 결론

칼빈이 어떻게 그의 어머니로서의 교회관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칼빈이 자라온 경로와 그가 살아온 가정적 배경을 보아서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떠올릴 수 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던 칼빈은 가슴 한복판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품이 오래도록 여운을 남겼을 것이다. 어머니의 자상한 손길, 어머니의 따뜻한 품, 어머니의 정겨운 돌봄이 그림자처럼 자리하고 있을 것 같이 분명하다.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인간 본연적 잠재가 칼빈으로 하여금 ‘어머니’라는 교회론의 주제어가 되게 하였을 것이다. 그 주제어 ‘어머니’가 교회론의 다름에 있어서 양식이 되었다. 결국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4권의 교회론 부분에서 “어머니로서 교회”란 명제를 사용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의도로 칼빈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어머니”를 주장한다. 칼빈은 인간적 관계에서 어머니를 일찍 여의 허전함과 공허함이 글을 쓰면서 글 속에 그 어머니를 채워 나간 것이다. 어머니의 힘은 강력한 것이다. 연약한 여인 같지만, 폭풍같은 힘을 발휘하게도 하였다. 칼빈은 『기독교강요』를 통하여 개혁교회를 진동하게 하였다.

어거스틴도 어머니 모니카를 통하여 탕자처럼 살던 아들 어거스틴을 세계의 산봉우리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로 의인화하여 생명을 담았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란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였다.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를 두고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나누었다. 그에게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의 관계는 중심을 같이 하면서 중첩하는 두개의 동심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칼빈은 " 참된 교회란 참 신자만으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교회"라고 말한다. 그리고 교회의 표지인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된다면 교회의 사명인 사회봉사와 선교 등을 통해 사회와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불신자 및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앙을 나누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신앙을 보존하기 위하여 교회를 주셨다는 칼빈의 교회론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나열한 칼빈이 말한 강권적 교회론은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이다.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오는 풍성한 젖을 아이가 받아 먹어야 건강해 진다. 만일 어머니의 풍성한 젖을 먹지 못하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교회가 어머니의 젖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바르게 선포되고 집행되고 받아 먹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8:9)고 하였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없는 교인도 있어 당을 짓고,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유다서 기자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유1:19)고 하였다. 성령님을 비난하는 교인도 있어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성령님의 강권적 역사

하심과 행동하심에 어머니로서 교회는 가능하다. 성령님의 강권적 역사하심의 행동의 목표는 하나님나라이다. 교회에서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가야 할 품은 하나님나라이다. 어머니의 품안에서 아기들이 새록새록 잘 자듯이 사람들의 진정한 품은 하나님나라이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소개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칼빈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에서 궁극적 목표로 하는 주소는 하나님나라이다. 여기에 이 목적을 위해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절대적 필요임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칼빈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신학적 교회론의 주제이다. 현 시점에서 휘청거리는 힘없는 교회에게 진정한 쫓이 될 영양소이다. 지금까지 교회는 뉘초리를 든 무서운 아버지처럼 교회성장론에 빠졌다. 올바른 성경적, 신학적 교회론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교회당에다 사람을 채우는 일에 전념하였다. 올바른 말씀의 쫓이 교회에서 제공되지 못하였다. 수유가 되지 못했다. 그로 인하여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문을 닫고 사람은 영적으로 매말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시대적 침체 속에 헤매이는 교회를 두고 떠올린 단어가 어머니이다. 교회는 너무 무서운 아버지가 되어 성공론에 빠졌다. 그래서 재미가 없고 정이 없다. 이러한 상태에 빠진 교회가 다시 나눌 대안어가 바로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떠난 자식을 찾고,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는다. 어머니는 목숨을 바쳐서도 자식을 돌본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 먹이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있다.

어머니로서의 교회, 어머니 같은 교회가 복음으로 성도를 낳고 말

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보살피기에 가장 적합한 교회 모습이다.

오늘의 교회는 찢어지고 갈라져 절대적 치유가 필요하다. 바로 이 시점에 교회의 회복에 어머니로서의 교회로 다가갈 때 명든 성도들은 치료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의 필요성을 재인식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겠다. 칼빈의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되어 성도의 생산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데오도르 베자, 『존 칼빈의 생애와 신앙』 서울: 목회자료사, 1999.
- W.J. 부스마, 『칼빈』 이양호, 박종숙역 서울:도서출판 나단, 1991.
-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장신대출판부, 1997.
- 빌헬름니이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3.
- 칼바르트, 『바르트교의학 개요』, 전경연역 서울:성문학사, 1983.
- 몰트만, 박봉량 외 4인역, 『성령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 서울:신학연구소, 1980.
- 피터 브라운, 차종순 역, 『어거스틴 생애와 사상』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박재순, “본회파의 교회이해”, 「신학사상」 제55집 1986, 겨울
- E. P. Clowney, The Doctrine of the Church 이창우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최태영, 『버리면 얻는다』 대구:보문출판사, 1997.
- 이윤근, 『성령론』 서울:성광문화사, 1992.
- 이윤근, 『교회론』 (서울:성광문화사, 2001
- \_\_\_\_\_, 『헌법』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이장식, 「 기독교 사상사 제1권 」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8.
- 박근원,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78.
- 박봉량, 『신학의 해방』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1.
- 윤성범, 『칼 바르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8.

John Calvin, 「기독교강요 요약」 지원용 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1984.

Francois Wendel, 「칼빈주의 신학 서론」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기독교 문화사, 1986.

John T. McNeil,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양낙홍 공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1990.

Alvin Roy Sneller, 「칼빈주의 신학과 선교」 서울:성광문화사, 1987.

John Calvin, 「기독교강요(초판)」 양낙홍 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1990.

주연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박근원,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78.

존 칼빈, 『기독교강요 요약』 이형기 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0.

W.J. 부스마, 『칼빈』 이양호·박종숙역 서울:도서출판 나단, 1991

## 2. 논문

옥수석, “바울의 교회관” 신학석사학위논문, 교신대학신학대학원, 1987.

김완신,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연구 -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신학석사학위논문, 1989

### 3. 월간지, 회지

- 전병호, “성령의 움직이는 교회”, 『기독교사상』 서울:기독교서회, 1978. 6  
선우학원, “칼빈의 生涯와 政治思想”, 『기독교사상』 제111권 1967. 7  
전경연, “칼빈의 신학”, 『기독교사상』 제185권 1973. 10  
곽선희, “성령과 선교”, 『기독교사상』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3. 1  
박복량, “성령의 신학적 이해”, 『기독교사상』 제22권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8. 8  
김용복, “성령과 역사”, 『기독교사상』 제25권 대한기독교서회, 1981. 4  
심일섭, “성령이해의 혼란속에 있는 성령”, 『기독교사상』 제27권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3. 6  
황정욱, “칼빈의 새로운 교회관과 목회”, 『기독교사상』 제455권 1996. 11  
이오갑, 「목회와 신학」, 서울:두란노, 1994.  
남의도,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영가』 대구:대봉교회 고등부회지, 1983.12

### 4. 인터넷 및 신문

- “이준원 박사의 개혁주의 신학” <<http://chongsin.org/build/board.php3?table=reformed>>  
“개혁신학” 제3장 개혁주의 신학 <<http://kcm.co.kr/ency/evol/#3>>  
“어머니와 자녀 상담” <<http://kcm.co.kr/family/data05.html>>  
최태영, “성경속에서 찾는 진리,” 『영신학보』 2002년 11월 28일: 5.